

광주·전남 예년보다 많은 비... 인명피해 대비 주력

광주·전남 높은 재해 복구율 빠른 행정 절차로 대비 총력 "피해 예방 위해 민간협력 중요" 유지보수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지난달 29일부터 쏟아진 장맛비로 인해 침수, 토사유출 등 수해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올여름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돼 각 지자체와 시민들의 예찰이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지역 7월 강수량은 전년도(206.5~279.1mm)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나타났다. 8월에도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을 받아 평년(192.2~322.0mm)보다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경우 도심 곳곳에 아파트건설 현상이 많은 광주 지역은 토사유실,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현장은 특히 배수시설과 낙하 등 안전현황 확인에 취약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번질 위험도 있다.

최근까지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광주 동구 지산동 우회도로는 지난해 장마철 호우로 지반 침하 이력이 있어 재발 위험도 있다.

광주·전남은 높은 재해 복구율과 빠른 행정조치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해 나갔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해 복구율은 100%로 지난해 수해피해를 입었던 재해



30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장맛비로 인해 토사가 유출됐다.

광주 남구 제공

복구대상 3곳의 공사가 모두 완료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아 5월부터 시정조치해 재해복구를 빠르게 이뤄낼 수 있었다"며 "행안부로부터 최근 10년 치 분석자료를 받아 사망·실종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산사태·토석류,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 홍보전단지 8000장가량을 각 구역에 배포했고 홍보영상 제작, 라디오방송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수해 대비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장마철 시민의 자발적 복구준수

와 민간 협조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하천 출입 통제와 도로 차단에 대한 조치에 따라줘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해당 조치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도 높은 재해 복구율과 재난 행정으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선정된 재해복구 대상 4317개소에 대해 재해 복구율이 98%, 장마 피해가 집중된 2022년부터 선정된 대상 복구율 78%, 지난해부터 선정된 대상 복구율은 86%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해 지역 복구는 설계부터 착공까지 협의해야 할 기관만 14개 정도다"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통한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 군에 따라 재해복구율이 아직 50%도 못 미친 지역도 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선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추가 수해 대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이 같은 신속 행정 절차를 통한 장마철 대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제방이 무너지거나 폭우로 인한 토사붕괴 등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재홍 동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자연재해 피해 대비를 위해선 유지보수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비탈

면 붕괴 사고는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던 곳도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지반에 스며들어 결국 무너졌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 인근 주민에게 개발 지역을 알려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전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집중안전관리와 실시간 점검이 중요한데 광주·전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곳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지보수를 위한 재난 대책 지원을 늘리는 등 행정적인 강화책도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의 재난취약지역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웅북붕괴·급류로 인한 휩쓸림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한 여름철 재난취약지역은 22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지역 산사태·급경사지 등 사고 우려 구역은 94개소, 지하주택 도로 등 침수우려 구역은 54개소로 파악된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자치구, 공사·공단 등 2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민간업체 등과 안전취약시설 10개 분야 총 769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쳐 28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장기 보수·보강이 필요한 296건은 해당 관리기관에서 별도 보수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재해 예방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 취약 시설 정비·복구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월부터 산사태취약지역 2281개소를 포함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3827곳을 점검하는 등 준비를 강화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성매매 알선한 40대 보도방 업주 구속

성매매를 알선해 이익을 챙긴 40대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4개월 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직업 알선 미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 40여 명을 유혹 주점에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첨단지구에서 약 10년 동안 최대 규모 보도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보도방 업주와 유혹 주점 업주 간 이권 다툼 속 흥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은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여성 접객원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유혹주점 업주 2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무거운 범죄"라며 "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불법 보도방과 유혹주점 업주,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이별통보에 격분... 전 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입건

이별 통보에 격분해 전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7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현관문 잠금장치(도어락)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개월가량 교제한 연인 B씨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홑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정상이 기자

전국 총판/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

파크골프 100만 시대, 국내 최고 파크골프채 생산 브랜드 뉴월드파크골프와 함께 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 총판/대리점 : 파크골프 관련업체 종사자 우대 (각 지역 전체)
- 영업사원 : 파크골프채 판매에 관심있는 분 (차량 소지자 우대)
- 판매 품명 : 파크골프채, 파크골프용품
- 대표전화 : 1551-7150, 010-3509-4191
- 본사주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치산길 26 (보경잔디농장내) 생산공장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길 22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